

DB은행 축협한우리 서비스 국내

DB뱅크

데이콤(천리안)

축산 관련 그림정보 “축협 한우리” 서비스!!

축협중앙회에서는 다채로운 그림 축협 중으로 축산물 유통/관측정보 등 축산 관련 종합정보를 “축협 한우리”를 통해 제공한다. 축협은행과 축산 종합정보, 축협 판매장 정보 등으로 구성된

축협한우리 정보는 축산 농가와 일반 소비자에게 다양한 축산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축산관련 그림정보를 이용하려면 축협 한우리방(GO GNL-CF) 또는 천리안 TOP 메뉴 17번 ‘그림정보’의 1번 ‘뉴스/농업통계/날씨’에서 축협 한우리방(GO GNL-CF)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축협 계시관, 축협뉴스, 축산물 유통정보, 축산 관측정보, 축산 종합정보, 이 달의 축산 사업관리 정보, 축산물 판매장 안내, 축협 은행 안내 등이 있다.

부동산매각 정보, 성업공사 서비스 실시

국내 유일의 채권회천리안 TOP 메뉴 11번 '부동산' 부문천리안 TOP 메뉴 11번 '부동산' 부문 및 부동산 관리/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성업공사에서는 다양한 매물정보와 부동산 매물, 편리하고 유리한 매입조건과 정보를 천리안을 통해 제공한다. 부동산매각정보, 성업공사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메뉴 11번 부동산부문 36번 또는 성업공사 매각물건정보(GO SUNGUP)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택/점포/상가/아파트, 빌딩/사무실/임야/논, 밭/창고, 대지/잡종지/기타 토지/공장/자동차/중기, 호텔/여관/선박/기타 매각물건 정보 제공등이 있다.(제공기관 : 성업공사)

인물정보, 최근 자료와 신규 인물정보 추가!

우리나라 주요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12번 '기업/무역/세무/물가/인물'의 51번 '인물정보' 선택보에서는더욱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인물정보 서비스를 기초로재 구성을 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한다. 현재, 정계·재계·학계·법조인·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59,000여명에 대한 인물정보가 총망라 되어 있다. 인물정보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메뉴 12번 '기업/무역/세무/물가/인물'의 51번 '인물정보' 또는 인물정보(GO PEOPLE) 선택하면 된다.(제공기관 : 중앙일보사)

각종 '공연물(문화행사)' 안내와 예매를 천리안을 통해!!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 또는 개최될 예정이다. 주중, 주말에 좋은 공연을 만나고 그속에 심취할 수 있다면 두말할나위 없다. 천리안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문화적인 욕구에 만

족을 드리고자 각종 공연물 행사 안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직접 표를 예매할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물예매(GO TICKET) 또는 천리안 TOP 메뉴 9번 '주문' 부문 15번에 위치음악회, 연극, 영화, 무용, 기타 등의 공연물 안내 및 예매 서비스를 이용하면된다. 이용하기 전에 11번 '이용안내'를 반드시 열람하기 바란다.

한국PC통신(주) - HITEL

소프트웨어 공모전 당선작 발표

공개자료실의 활성화 및 공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하이텔에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공모했던 하이텔 공개소프트웨어 공모전의 당선자가 확정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 프로그램을 응모한 사람들은 모두 25명 이었다. 여러 공개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그 내용과 기능성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그 기능들이 크게 뛰어난 작품이 거의 없어 부득이 대상과 금상에 해당하는 작품을 선정할 수가 없었다.

하이텔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이번 공모전의 취지와 부합되는 하이텔과 통신 관련작품에는 평가상에서 약간의 점수가 추가되어 작품의 완성도는 낮으나 그 노력한 결과가 두드러진 작품에 특별상을 제정하여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자동차 사진자료실 - 면허와 자동차

면허와 자동차(go enicar)에서는 새로 《자동차 사진 자료실》과 《이것이 자동차 기록》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자동차 사진 자료실》에서는 세계의 각종 자동차들의 생생한 사진을 PCX화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자동차기록》란 에서는 자동차의 역사, 생산, 속도, 가격, 크기,

무게, 제원 등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 → 4.생활/문화 → 5.교통/자동차 → 3.면허와 자동차로 찾아가거나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enicar'하면 된다.

종로, 동대문, 성동구청-민원정보제공

그동안 서울시 구청민원서비스가 3개 구청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이제 기존의 성북, 송파, 중랑구청과 부산시, 진주시, 제주시와 함께 6월 17일부터 서울시의 3개 구청이 추가됨으로써 이용자의 이용범위가 확대 되었다. 추가되는 종로/동대문/성동구청 서비스는 기존 민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청후 3시간 후에 방문하여 찾아갈수 있고, 또는 홈뱅킹서비스와 연결하여 모든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서류 발급신청때문에 구청을 직접방문하는 수고스러움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1~3일안에 받아볼수 있다. 그리고 "구청에 바란다"코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청에 바로 전달할 수 있으니, 보다 발전하는 구청이 되도록 많이 이용하도록 권한다.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를 선택한후 51.민원처리- 1서울특별시-종로/동대문/성동구청을 선택하시면 된다. 또는 하이텔 어느화면에서나 go seoul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관/훈/상/제례, 명절 정보 개시

한국통신에서 1993년 공공DB로 개발한 우리민족의 전통예절 그리고 현대의 어린이/청소년/성인예절에 관한 가정의례정보가 1994. 6.20일부터 정식 서비스 된다.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민족 고유의 생활양식을 가정의례정보에서 느껴보기 바란다. 가정의례정보는 성균관에서 제공을 하며 주요정보의 내용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 회혼례정보, 생활예절(어린이예절, 청소년예

절, 성인예절, 식사예절등), 전통명절, 24절기, 전통놀이정보, 국내의 관련기관정보, 고유술어정보, 성균관예절광장(예절 질의/응답) 등 있으며 각 정보는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과 상세한 그림 정보가 제공 된다. 현재는 총 구축정보중 일부가 제공되고 있으며 계속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가정의례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HiCOM 2.1, 이야기 6.0이상, 아기사랑(baby love)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정의례정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 → 65번 가정의례 정보를 선택하거나 하이텔의 어느 화면에서든지 "go hrule" 또는 "go 가정의례"를 하시면 된다.

연변으로부터 새정보 서비스!

작년 7월부터 서비스되어 오던 연변정보가 새로와 졌다. 6월부터 새로이 하이텔 가족에게 제공되는 연변정보는 중국 연변의 화연PC통신센터로부터 온 라인으로 직접 자료를 제공받아 서비스 된다. 중국 연변지역의 국내통신망으로부터 중국 국제 데이터 Packet망 (China-Pack)과 우리나라 국제 데이터망(Hinet-P)을 거쳐 하이텔로 들어오게 되는 연변정보는 수시로 정보갱신이 이루어져 중국이나 연변지역에 관심이 많은 하이텔이용자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될것이라 기대된다. 연변정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서비스 어디서나 "GO YANBIAN"을 입력하거나, "초기화면 → 2.하이텔특집 → 3.중국연변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죽의 장막이라고 여겨지던 거대한 중국에 대한 궁금증, 이제 하이텔의 연변정보를 통해 풀어보기 바란다.

일본 G-Search, 7월중 시범서비스

하이텔을 통한 일본의 G-Search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국제통신망 구성과 일본 G-Search사측의 사정으로 당초 6월 1일에서 7월로 연기되었다. G-Search사는 신문뉴스 및 속보정보, 경영/

기업정보, 산업정보, 도서정보, 인물정보, 국제정보 등 1,000여개의 DB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3대 DB서비스업체 중의 하나로 오는 7월중 하이텔을 통해 시범서비스한다. 쌍방향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제공될 G-Search 서비스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DM을 받아보고 싶은 이용자는 "ipdept(IP상담)" 앞으로 메일을 주면 된다.(문의전화 : 02-513-2118)

에이텔(주) POS-SERVE

월간지 < pc Line > 정보서비스 개시

한경PC라인에서 출판하는 <pc Line>은 재빠른 정보감각으로 신속하고 알짜배기 정보를 한발 앞서 컴퓨터 이용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컴퓨터 잡지이다. 얼마전에는 CD-ROM을 별책 부록으로 발행해 CD-ROM에 아직 낯설은 독자에게 앞서가는 정보감각을 일깨워 주기도 하여 선풍이 일으킨 정보업체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pc Line> 잡지를 직접 POS-Serve에서 한결 빨리 만나 볼 수 있으며 CD-ROM을 통해 제공하던 무궁무진한 세어웨어 자료들을 pc Line의 자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언제든 GO PCLINE하시면 항상 새로운 정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OP 메뉴중 18. 기사리뷰/문헌/인물 → 13. pc Line 또는 GO PCLINE으로 하면 된다.

국내의 기독교 도서정보는 이제 <기독교 종합정보>에서...

방대한 기독교 신앙서적 출판 및 관련 음악기획사업을 해오고 있는 도서출판나침반사에서 '기독교 도서정보 DB'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독교 신간도서정보까지, 또한 도서관문 검색, 생생한 설교 및 각종 기독교계 소식 등을 제공할 기독교 도서정보 DB는 6월 1일부터

제공하는 <기독교서적 쇼핑>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께 충실한 기독교 관련정보와 온라인 도서검색의 편리함을 안겨 줄 것이다. <기독교서적 쇼핑>에서는 나침반사 도서검색 및 주문과 설교태임을 주문할 수 있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기독교 도서정보를 이용하려면 <기독교 종합정보> TOP 메뉴중 18.기사리뷰/문헌/인물 8. 기독교 종합정보 <기독교서적 쇼핑> TOP 메뉴중 14.예약/주문/오락기독교서적 쇼핑을 선택 또는 NIC(기독교 종합정보)/NICSHOP(기독교서적 쇼핑)을 선택하면 된다.

데이트부터 결혼생활까지 <결혼종합정보>서비스

새로운 데이트 장소? 만날때마다 좀더 즐겁고 항상 새로운 데이트는 없을까? 또는 약혼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통혼례로 하고픈데 어디 정보가 없을까? 혼수를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어디일까, 내집마련하려면 가계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까? 짐들이는 해야 되는데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결혼을 앞두고부터 신혼초에 맞닥치는 새로운 '당면과제'들을 이제는 자신있게 해결해 주는데 바로 <결혼종합정보>가 능력있는 조연자 역할을 해줄것이다. 교제시기부터 결혼, 신혼생활까지 각종 사항들을 총망라한 데이트정보, 약혼정보, 결혼준비정보, 혼수정보, 신혼여행정보, 신혼생활정보, 기타 관련정보 등 폭넓고 경험이 풍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결혼정보를 이용하려면 TOP 메뉴중 12.여행/문화/가정 17.결혼종합정보 또는 GO TOPWED하면 된다.

NIFTY-Serve 국제회선 이용요금 45% 인하 !!!

NIFTY-Serve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국제회선 요금인하가 6월 1일자로 드디어 시행된다. 이용자의 좀 더 편

리하고 원활한 해외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현재 국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일본 유수의 PC통신 서비스인 NIFTY-Serve의 국제회선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인하한다.

- 요금인하 부문 : NIFTY-Serve 국제회선 이용요금
- 인하 요금 : 기존 540원 → 300원/분 (POS-Serve 경유시)
- 요금인하 일시 : 94년 6월 1일 (수)

이번 인하는 저희 POS-Serve 해외서비스가 작년 10월의 CompuServe와의 전용회선 설치에 이어, 오는 6월 1일을 기하여 NIFTY-Serve와의 전용회선 서비스를 개통하게 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는 미국을 우회하는 경로에 의한 전용회선 구축이므로 일본이 지리상으로 미국보다 가깝지만 국제회선 이용요금은 CompuServe 보다 높다.

국정뉴스

총무처, '행정경영정보 시스템'개발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소장 최석충)는 행정에 첨단전산 경영기법을 도입한 '행정경영정보 시스템'을 개발, 총무처 상황실에서 황영하총무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 시연회를 가졌다. 행정의 과학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경영정보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사무자동화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현안과 주요정책 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DB)화해 정책결정권자가 직접 컴퓨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기관과 기관간의 각종 보고 및 문서와 간부일정 및 공지사항 등을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하는 유통시스템으로 인력과 예산 및 시간의 절감이 기대된다.

상공부, 산업정보망 사업 운영주체 공모계획 확정

상공자원부는 산업정보망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될 사업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확정, 7일 발표했다. 공모계획에 따르면 사업운영전담 기관의 신청자격은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시스템통합사업자 신고요령에의한 시스템통합사업자 *전산관련 대졸자 및 전산2급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를 40명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다.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95년초까지 관련조직과 정보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거친 후 *관련단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정보제공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각종 정보·자료의 유통 및 교환업무 *전산설비 및 정보의 보안관리 등을 맡게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와 효율성을 감안, 사업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정보망 구축이 끝난 시점부터 민간에 이관, 전담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상공자원부는 97년까지 통상·무역·산업·에너지·광업, 공업기술 및 특허 등 각 부문의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상공자원부 산하 3백32개 단체와 기업체를 하나의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산업정보망 사업 계획을 확정했었다.

체신부,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체신부는 한층 급변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화요금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원가에 기초한 요금구조로 개편하는 등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폐지해 기간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선통신사업은 물론 여타통신사업에도 자유롭게 진출토록 하는 한편 시장개방을 계기로 국내 통신사업의 해외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통

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관련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시·국제전화, 회선 재판매서비스의 현행 진입장벽을 완화,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구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신규 사업자들도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화요금 구조를 원가에 기초한 요금구조로 전환하고, 요금규제방식도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에게는 가격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고 비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요금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통신요금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밖에도 그간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용해온 상호접속을 비롯해 설비제공 제도, 주과수 할당, 표준채택 등 각종 규제제도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관련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신 사업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안한 구조개편(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체신부가 이달 안으로 확정할 통신사업 구조개편 작업은 통신개발연구원에서 마련한 구조개편(안)을 토대로 관련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담반 구성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연구 개발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통 핵심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을 수행할 연구개발 전담반이 구성된다. 과기처는 초고속 정보통신 이용기관에서 활용하게 될 응용시스템의 공통핵심 SW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자원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스템공학연구소장 등 12명의 당연직과 선임직 3~4명 등 총 16~17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연구개발 전담반은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분야의 정책방향 제시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추진 *범부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공통 핵심SW기술 발굴 및 개발 추진 *관련사업 및 기존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검토 등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연구전산망체제 정비 및 활성화 *초고속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표준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DB)의 개발 및 보급 *고급전문인력 양성 *초고속수퍼컴퓨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등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이용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처는 연구개발전담반의 가동과 동시에 각 부처에서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SW기술을 발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기획 연구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공뉴스

한국통신(KT)

한국통신(주)-한국통신(KT)회사이름 같아 잦은 “해프닝”

한국통신주식회사와 한국통신. 언뜻 똑 같아 보이는 두 이름은 전혀 다른 두개의 회사다. 이름때문에 갖가지 해프닝을 연출하는 주인공들이다. 하나는 “비디오 폰”의 국내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홈 오토메이션 및 CC(폐쇄회로) TV카메라 개발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면서 정보산업계를 “좌지우지”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전기통신 공사가 민영화계획을 세우면서부터다. 이 회사는 공식명칭을 “한국통신(KT)”이라는 약칭으로 쓴다고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른 대대적인 CI(이미지통일) 및 대외홍보작업이 뒤따랐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한국통신”하면 전기통신공사로 생각하게 됐다. 심지어 전자업계

종사자들도 한국통신을 HA나 CCTV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되자 한국통신주식회사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루 에도 번씩 일어난다.

77개 공공DB개발 52개 업체 선정

한국통신(대표 조백제)은 국내 DB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DB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공공DB개발 사업자로 77개 과제의 총 52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개발과제로 선정된 93개 중에서 제안서 제출을 포기한 과제(5개), 실무위원회 평가결과 개발및 운용능력 미흡으로 탈락한 과제(11개) 등 16개 과제가 제외된 것으로 한국통신은 이번에 선정하지 못한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DB개발 사업자 선정에는 총 1백13개 사업자가 2백3개 개발제안서를 제출해 약 2.2대의 경쟁률을 기록,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 선정된 개발 과제 담당 사업자 중에서는 한국PC통신이 8개과제, 데이콤이 6개과제를 차지해 1,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스포츠.레저정보의 8대1을 비롯, 금융상품정보 5대1, 소비자상품 및 구매정보사업및 부업 아이디어정보.전국관광정보 등이 각각 4대1을 기록하는 등 주로 일상생활정보 분야의 경쟁률이 높았다. 한국통신은 이번 공공DB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한국통신의 석.박사급 연구원 15명으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가 사업설명회시 공개된 이용자 요구사항분석 등 1백개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했으며 자료의 수집.분석능력 등 정보개발방안,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개발된 DB의 운영방안,경제성 평가 등을 중점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달말까지 선정된 개발사업자와 해당 공공DB의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향후 개발된 공공DB는 한국통신의 공중정보 통신망(HINET-P)을 통해 일반에 제공할 예

정이다.

하이텔통해 미아찾기 정보제공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컴퓨터통신 하이텔을 통해 “미아찾기정보”, “가정의례준칙정보”등 공공정보 2종을 추가, 무료서비스에 나섰다. 미아찾기정보에는 8천여명의 미아에 대한 얼굴 사진과 특징, 보호장소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린이재단(서울 02-777-0182)에 신청하면 미아의 사진까지 입력,하이텔로 제공된다. 미아찾기와 함께 제공되는 가정의례준칙정보는 관혼상제, 명절, 24절기, 전통놀이등을 그림화면과 같이 소개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가입자의 경우 “01410”으로 전화를 걸어 하이텔에 접속한 후 초기화면에서 “1.하이텔”을, 비가입자는 이 순서를 그대로 하되 이용자번호에 “hitel”을 입력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정보가 하이텔에 추가됨에따라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17가지로 늘어났다.

인터넷 서비스 시작

전세계 60여개국 6만3천여개의 중,대형 컴퓨터를 연결하는 세계최대의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을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이 “한국인터넷”(KORNET)란 이름으로 20일 서울지역에서 우선 개통한 인터넷 서비스는 곧 전국 6대도시및 도청소재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방과 사무실에서 전화회선으로 연결된 PC로 미국의 MIT, 하버드, 스탠포드대학 등 우수대학과 미식품의약국(FDA), 미항공우주국(NASA), 벨연구소등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들이 공개한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한국통신의 하나네트(HANANet), 서울대의 크렌(KREN), 한국과학기술연구원산하 시스템공학연구소의 크레오네트(KREONet)을 통해 전문가들 사이에는

인터넷이 이용되어 왔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인터넷은 전세계 7천여개의 근거리통신망(LAN)과 연결되어 있고 2백만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단말기가 상호접속돼 1천만명 이상의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통신이용량이 8백%씩 증가 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전국에 신청, 한국통신의 허가를 받으면 접속에 필요한 장비도 한국통신이 대여해 준다. 모뎀이 장착된 PC로 한국통신 컴퓨터에 접속하면 내부연결장치를 거쳐 태평양상의 해저케이블이나 위성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일반기업들은 호스트컴퓨터나 근거리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로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이나 공중기업통신망(KT-CO-LAN)을 통해 접속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간에 전자우편을주고 받거나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직접 편지를 작성, 세계 각국에 보낼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관련 기사를 직접 받아 볼 수 있어 집안에 앉아서도 지구촌 곳곳의 깊은 정보를 즉시, 그리고 소상히 알 수 있다. 더우기 머잖아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음성과 다양한 영상정보도 즐길 수있다. 이용요금은 PC로 접속하는 경우 기본요금 월 4만원에 사용시간에 따른 시내전화요금만 내면 된다. 별도의 가입비나 장비대여료는 없다. 호스트컴퓨터나 근거리통신망(LAN)가입자는 전송속도에 따라 9천6백Kbps(초당전속도)이하의 2만8천원, 9천6백Kbps 이상은 10만원의 가입비와 월 12만원부터 5백만원까지의 기본요금과 이용통화료와 시설대여료는 별도로 내야한다. 정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재학생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에는 이용요금의 40%가 감면된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STEPI DB 구축

국내 및 국외의 과학기술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기술지표 데이터베이스(DB)가 국내처음 구축돼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이 가능케 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최근 과기처, 통계청, 한국은행 등 국내기관과 OECD등 국외 통계기관의 발행자료를 비롯 기존 자료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공한 STSI(STEPI 과학기술지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과학기술통계의 경우 올바른 변수의 선정문제, 선정된 변수들의 국제적 통용성, 조사된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분석 및 검증문제 등으로 실효성있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통계 DB의 구축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STSI는 크게 “과학기술 관련 통계”와 “과학기술 관련 지표” 두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과학기술 관련 통계는 연구개발인력등 19개 항목으로 분류 했으며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인구 1인당 총연구개발비등 모두 25종을 제시하고 있다. STEPI는 이번 STSI 구축으로 과학기술 관련 통계의 신속한 검색 및 확보가 가능한 것은 물론 연구개발분야에서의 국제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PC를 이용해 단순한 통계자료를 각종 그림으로 출력시킬 수 있는 등 사용이 매우 편리해 과학기술 관련 통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정보의료학회

대한정보의료학회 심포지엄 및 시연회개최

대한정보의료학회(회장 고창순)가 17일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서 “94 춘계학술심포지엄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의료분야의 영상처리기술 응용이라는 주제로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통해 방사선필름·의무

기록등의 의료영상을 전산처리해온 각 병원의 의료 영상처리기술 실제운용사례를 광파일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PACS)등이 소개됐고 일본 지바현대학 다카바야시교수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특강을 했다. 또 서울 중앙병원의 종합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등록 2백54건

지난 5월중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은 모두 2백85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14일 발표한 5월중 등록실적에 따르면 지난 4월보다는 1백33건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백77건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총 1천6백4건이 등록됐으며 지난 87년 9월이후 등록된 프로그램건수는 모두 1만7천4백57건으로 늘어났다.

5월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저작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 서비스업 1백11건(38.9%), 제조업 95건(33.3%), 개인 39건(13.7%),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9건(6.7%), 운송·창고·통신업 11건(3.9%)순이다. 또 프로그램을 용도별로 보면 과학기술용이 전체의 45.3%인 1백29건으로 가장 많고 사무관리용 82건(28.8%), 오락용 13건(4.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13건(4.6%)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등록저작자는 삼성전자가 53건(18.6%)로 가장 많고 대우엔지니어링 20건,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14건, 금성소프트웨어 14건, 에스 티 엠 12건 등이다.

등록한 프로그램을 사용기종별로 보면 IBM XT/AT호환용 PC용 프로그램이 1백61건(56.5%)으로 가장 많고 중대형 컴퓨터용 프로그램은 78건(27.4%), 게임전용기 및 모뎀등 기타 33건 등이다.

정보통신 정책학회 정보통신산업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 정보통신 정책학회(회장 엄영석

외대 교수)는 10일과 11일 양일간 대전 유성관광 호텔에서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멀티 미디어 혁명과 정보통신산업 비전(김인호 한양대 교수)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추세와 기술 확보방안(양승택 전자통신연구소장) *세계정보통신 서비스시장 변화추세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과제(방석현 통신개발연구원장)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우리의 정책방향(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실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정보통신 강연회 개최

한국전자통신 연구소(ETRI)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10일 충남 논산 소재 건양대 대강당에서 “지역정보화와 국민복지통신-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출현”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방매스컴 역할(송병호 대전 일본노설위원) *정보사회의 의미와 국민생활 정보화(조세형 건양대 교수) * 21세기 정보통신서비스 IMPH(이만섭 전자통신연구소 광대역전송연구부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IMPH는 전자통신연구소가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지능화·복합화·개인화·인간화를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기자문회의, 정보화체제 구축전략 정책포럼 개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생산기술연구원(원장 김영욱)과 공동으로 3일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국방관리·운영의 정보화체제 구축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원장의 “국가경쟁력과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새 위상”이라는 기조발표와 *국방과 NII(김철환 국방대학교교수) *국방과학기술의 정보화 관리체제 구축방안

(허주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군·민간 R&D의 연계체제 구축방안(이재운 중앙대교수)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기초발표에서 백원장은 국방재원을 전력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 배분해야 하고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방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투자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신 국방비전이 정보화 시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정보화된 군의 건설이므로 군이 “기술집약”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사결정위주의 전쟁수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 기술 특히 무선·위성·광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들이 가속적으로 혁신되도록 산·학·연과 함께 민·관·군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주 본부장은 국가초고속정보기반(NII)의 구축을 통한 국방관련기관간의 정보 유통체제 확립과 국가과학기술의 민·군 공용활용체제를 갖춰 개발된 기술의 상호이용·공유화를 피해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교수는 부족한 연구개발자원의 보완·개발 성공률의 향상 취약기술의 상호보완과 기술개발력의 확충, 위험분산·관련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 민·군 R&D 협력의 효과 및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신국방 가치창출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제8회 한국소프트웨어 공모전 대상에 ‘미래로’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회장 황철봉) 주최로 실시된 제8회 한국소프트웨어공모전에서 한국정보공학이 개발한 DB(데이터베이스)개발도구인 ‘미래로’가 영예의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금상은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한국컴퓨터가 공동개발한 ‘학술정보시스템’이 차지했으며 기술상은 삼성전자의 ‘사출성형 전용시스템’과 현대전자의 ‘부품검색시스템’(HEPS)등 2개작품에 돌아갔다. 이밖에도 아이디어상에 한국인식기술의 문서

자동입력시스템 ‘하이아트 글눈’등 3개작품이, 상품상에 정소프트의 ‘전자회로 설계시스템’을 포함한 6개작품이 뽑히는등 모두 13개 작품이 입상됐다.

정보처리전문가협회는 체신부 주관아래 지난 4월1일부터 5월7일까지 실시한 소프트웨어공모전 작품모집에 모두 63개작품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김영택 박사)의 심사를 거쳐 2일 이같이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가동일을 기념해 제정한 ‘정보의 날’인 오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공모전 입상작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제8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되며 9월9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무역전시장에서도 별도로 전시된다. *소프트웨어공모전 수상작 *대상=미래로(한국정보공학) *금상=학술정보시스템(서울대중앙도서관·한국컴퓨터) *기술상=사출성형전용시스템(삼성전자) *현대전자 부품검색시스템(HEPS:현대전자,현대미디어시스템,현대자동차서비스) *아이디어상=*하이아트 글눈(한국인식기술) *KIS-생산관리시스템(한국정보시스템) *서류가방(한국컴퓨터은행) *상품상=제품기술지원시스템(삼성전자) *임원정보시스템(한국도로공사) *WinC(원도우통신시스템:두산정보통신) *전자회로설계시스템(정소프트) *PERTware(퍼트웨어:현대정보기술) *시그마(SIGMA:강철호)

국내일반뉴스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기구 창설

아시아, 대양주 정보처리산업기구(ASOCIO)임원회의는 18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라는 새로운 국제정보기술기구를 결성키로 했다. WITSA는 기존의 세계컴퓨팅서비스산업포럼(WCS-

IF)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제1회 연례회의는 95년9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갖기로 했다. 임원회의는 또 리통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을 ASOCIO차기회장에 추대,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제14회 ASOCIO 총회에서 정식 선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과거 이념적인 냉전의 시대와는 달리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 경쟁력에서 앞선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부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급기술의 보유와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경쟁력을 갖는 인재양성은 더말할나위 없이 시하고 중요한 실정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지엽적인 전공 분야라기 보다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학문 분야이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정보통신 분야기술의 발전없이 국제경쟁력 제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가지면서 고도기술을 소유한 전문인력 양성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다니엘 벨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연구활동이 왕성한 50여개의 대학들이다. 이제 대학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발전과 퇴보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한 지적은 대학교육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의미심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중등교육의 입시위주와 하향 평균화 교육정책 때문에 국제화, 정보화등 세계의 급속된 기술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인재를 대학만이 배출하는데는 구조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할 수 있다. 소위 일류대학 정보관련 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의 여론조사에서 고등학교시절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자신이 희망하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정보관련 학과에 진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에서는 21세기 선진국대열에 끼는 것은 요원하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보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전공관련 회사에 입사해서 몇개월간의 전공연수과정을 따로 거쳐야만 한다.

이는 기업측에서 대학의 교육이 입사후 근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에서는 기업의 현실과 요구만을 따라 교육을 할 수 없고 입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및 응용과목을 교육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몇가지 개선할 점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정보관련 과목및 학과의 담당 교사와 교수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는 인력양성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날로 변화하는 정보통신 산업관련 기술의 방향을 연구·파악하여 교육의 방향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관련 과목을 중·고등학교부터 교육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여 재학시절에 정보통신관련 과목 경시대회등에서 우수 입상자를 대학자율에 맡겨 특전을 주고 선발할 수 있다면 오늘날보다 정보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훨씬 앞당겨지며 기초가 된 학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 인재를 대학에서 배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과 기업간의 교육내용과 업무내용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대학의 커리큘럼에 산·학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현장감있는 대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사회적으로 정보화 마인드(information mind)를 널리 보급하고, 국민에게 정보통신 산업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것의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통신 관련기업은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적극 서둘러야 할 때이다. 어떠한 이유이든 기업의 잉여금은 결국 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천적인 교육의 장을 무관심 내지 방치해 두고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은 요원하다. 그래서 관련기업체는 열악한 교육환경만을 나무라거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정부에게 짐을 넘기지 말고 대학시설에 과감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대학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질때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만이 정보화시대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후지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일·한 온라인 자동번역 서비스시스템 공동개발협정 조인

한국후지쯔는(대표 : 李璟浩)는 KIST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소장 : 성기수)와 6월 20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일·한 온라인자동번역 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국내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이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서, 일본의 과학기술정보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한글로 자동번역된 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이번 협정에 의하면 KORDIC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GATEWAY부분의 개발과 서비스체제 구축 및 운영을 책임지며, 한국후지쯔는 번역부분을 포함해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호스트관련부분의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8일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얻고 6월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올해 안으로 서비스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일본 최신의 각종 과학 및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한글로 받아볼 수 있게되어 국내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거행..이총리등 6백여명 참석

제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이영덕 국무총리,윤동윤 체신부장관,이민섭 문체부장관,황영하 총무처장관 및 김진현 정보화추진협의회회장 등 관계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화수준이 곧 국가간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면서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계기로 정보화촉진과 정보문화 확산에 가일층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또 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제6회 정보문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국방행정 전산화를 통해 군전력 증강에 이바지한 육군전산소에 최고상인 정보문화대상(대통령상)이 수여됐다. 국무총리상인 정보문화보급상은 지역정보통신망 '인디텔'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정보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인천정보센터, 기술상은 국산주전산기개발을 주도해온 오길록씨(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연구단장), 교육상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제작보급 등 컴퓨터 교육에 헌신해온 민진규씨(경북 산청 단계국교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정보문화의 달인 6월에는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전국에 걸쳐 정보통신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 모두 3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시범 및 시연, 학술, 공모행사 등 1백6건의 행사가 펼쳐진다. **DB**